BUSAN.com 부산일보

부산시, 2025년 전국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출범

20일 조직위 창립총회… 대회 성공 다짐

박승봉 부산닷컴 기자 sbpark@busan.com

입력 : 2024-12-19 18:32:03

2025년 전국체육대회 엠블럼 및 마스코트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에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2025년 10월에 부산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조직위원회 창립총회와 D-300일 기념행사를 2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회 조직위원회 창립총회는 20일 오전 11시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리며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주요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한다. 행사는 ▲식전공연(비슬무용단 빛볼무 공연) ▲전국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 대회기 입장 ▲준비상황 보고 ▲위촉장 수여 ▲성공기원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10월 경남 전국체육대회.전국장애인체육대회 폐회식에서 인수해 온 대회기를 항저우 아시안게임 요트 금메달리스트 조원우 선수와 휠체어럭비 이은경 선수가 박 시장에게 전달한다.

이어서 내년도 대회의 카운트다운을 알리는 D-300일 기념행사가 영상을 활용한 시계탑 제막식으로 진행되며 본격적인 체전의 시작을 알린다. '카운트다운 표시기'는 시청 앞 광장에 설치될 예정이다.

시는 25년 만에 개최하는 이번 대회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유관기관·단체와의 유기적·적극적 협력을 구축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으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했으며, 2027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종료 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통합해 구성.운영되며 시장이 조직위원장으로 28명의 고문, 6명의 부위원장과 10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은 국회의원, 시.구.군의원, 구청장.군수, 대학 총장, 군.경.소방, 언론.방송, 경제.금융.종교.문화예술, 체육계, 국민운동단체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138명의 주요 인사들로 구성됐으며, 대회 준비 단계부터 다양한 지원방안 등에 대한 분야별 자문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조직위원회 산하에 실질적인 대회 준비업무를 위해 시.시교육청.시(장애인)체육회.경찰청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와 16개 구.군으로 구성된 구.군 운영위원회를 둔다.

한편 시는 전국체전기획단을 신설해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종합계획 수립, 상징물 개발 및 홍보영상 제작, 경기장 신설 및 개보수 등 대회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대회를 널리 알릴 홍보대사에 제국의 아이들 출신 김동준 배우와 여자 펜싱의 대들보 송세라 선수를 위촉했으며, 개폐회식 연출 총감독에는 박칼린 예술감독을 선임해 내년 대회에 대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